

農村刷新에 關한 因果關係分析

—韓國農村地域의 里·洞單位를 中心으로—

徐 三 英
(15回卒業)

目 次

- 第一章 序 論
- 第二章 刷新에 關한 理論體系
- 第三章 資料의 蒐集과 整理
- 第四章 韓國農村刷新의 因果關係分析
- 第五章 結 論

第一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1960年代이후 世界各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諸面에서 急激한 社會變動(social change)이 이루고 지고 있다.

오늘날의 社會變動은 個人的(individual), 自然發生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集團的(collective), 意圖的인 運動이 그 特徵인 까닭에 오늘날과 같이 社會變動에 關한 研究가 重要視되는 때는 없다.⁽¹⁾

이에 作者는 韓國農村地域 刷新에 核心이 되는 要因을 引見하고 同時에 이터한 要因들이 農村刷新에 대하여 어떤 形態의 關係를 맺고 있으며, 또 効果는 ◇ 느정도인 가를 檢證하려는 理論的인 研究를 하고자 함이 本論文의 첫째 目的이다.

또한 作者는 心理學者가 重視하는 變數와 社會學的研究方法이 重視하는 變數間의 綜合化를 可能케 하여 주는 社會心理學의 인(sociopsychological) 分析單位에 의하여 韓國農村地域刷新을 위한 假設的 因果關係模型(hypothetical causal relationships)을 設定하고, 그들 變數間의 農村刷新에 대한 關係를 檢證해 봄으로써, 韓國農村刷新과 一線行政指導者 및 行政의 發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本論文의 두번째 目的이다.

第2節 研究의 對象 및 方法

1. 研究의 對象

一次의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京畿道와 74年度 새마을 示範道로 選定된 忠淸南道를⁽²⁾ 意圖적으로 選定(purposive sampling)하고, 二次選定方法으로는 各道의 市·邑 및 島嶼地方을 제외한 全郡을 對象으로, 比例的 無作為 抽出(proportional

(1) C. Zaltman(ed.), *Processes and Phenomena of Social Change*(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p. 1.

(2) 韓民國, 忠淸南道, 새마을運動現況, 1974. 4. p. 3.

random sampling) 方法에 의하여 150個 里·洞을 擇했다. 그런데 回收된 質問紙 및 調査表는 모두 69個 里·洞이었다.

2. 研究方法

筆者는 韓國 農村의 刷新을 위한 科學的이고 보다 보편적인 理論定立을 위하여, 農村地域의 刷新에 關聯된 動的의 現象과 靜態의 現象을 함께 고찰하여 農村地域의 刷新을 위한 要因을 抽出하고, 이 要因에 의하여 假說的 模型을 定立하여 檢證해 봄으로써 新로운 理論定立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를 可能케 하는 分析方法은 因果關係分析方法(Path Analysis)이므로, 이 方法을 擇하고 또한 變數: |正確한 構成要素를 把握하기 위하여 一部變數에 대하여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사용했다.

3. 調査方法

本 研究를 위한 調査方法은 地域의 廣範性과 調査對象單位의 多數로 인하여 郵送調查方法을 主로 하였다.

이 方法外에 內務部·農水產部·農村振興廳에서 發刊된 農村社會開發資料 및 새마을運動資料, 그리고 新聞·雜誌를 통하여 關聯된 資料를 蒐集

했다.

第二章 刷新에 關한 理論的 體系

第1節 概念定義

1. 刷新(Innovation)⁽³⁾: 本 研究에서는 刷新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자 한다. 刷新이란 社會組織 또는 下部體系가 體系自體의 目標達成 또는 社會變動에의 維持·適應을 위하여, 또 體系外의 要素가 社會下部體系外變動에 대한 維持, 適應能力을 갖도록 誘因하기 위하여 採擇한 후, 傳播, 擴散되어 가는 新로운 知識, 觀念, 行動樣式, 技術 및 計劃등을 의미한다.

2. 社會變動(Social Change)⁽⁴⁾: 社會變動이란 社會構造 즉, 社會的 行為나 相互作用의 類型에 있어서의 重大한 變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規範(norm), 價値觀, 文化的 產物 및 象徵(symbol)의 變化도 포함된다.⁽⁵⁾

이와 같은 社會變動은 計劃된 變動(planned change)뿐만 아니라, 變動役軍(change agents)의 意識의 社會的 目標의 追求 없이 發生하는 自然發生的 變動(unplanned change)도 포함된다.⁽⁶⁾

3. 態度(Attitude)⁽⁷⁾: 여기서는 態度를 里·洞

- (3) i) 刷新은 「타틴어」로는 Innovation로 표기되는데 그 뜻으로 「새로운 方法 診斷裝置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Webster Dictionary辭典에 풀이되어 있으며, 우리 말로는 刷新, 革新等으로 번역된다.
ii) 刷新的 定義에 대하여 여러 學者들의 것이 많으나, 그 概念定義에 있어서 뚜렷한 差異點은 없을 것 같다.
iii) E. A. Rogers,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hange," in G. Zaltman(eds.), *Processes and Phenomena of Social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pp. 75-87.
iv) La vrence B. Mohr,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3, (1969.) pp. 111-120.
- (4) E.M. Rogers는 社會變動을 "社會體系의 構造 및 機能面에서 發生하는 諸 變化의 過程(process of alteration)"으로 보는 반면, F. Allen은 이를 "社會體系 또는 그 下部體系의 構造, 機能 또는 過程이 一定期間에 修正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 E. A. Rogers, *Modernization Among Peasant: The Impact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p. 3 참조
ii) Francis Allen, *Socio-Cultural Dynamics*, (New York: MacMillian, 1971) pp. 39-40 참조
- (5) Wilber E. Moo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ian and Free Press, 1968). p. 46.
- (6) Philip Kotler, "The Elements of Social Action," G. Zaltman (eds.), *Processes and Phenomena of Social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p. 171.
- (7) 態度(Attitude)에 대한 概念定義는 아래 參照
i) George F. Summers(ed.), *Attitude Measurement*,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Inc., 1940), p. 299
ii) Theodore M. Newcomb, *Social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Inc., 1940), pp. 118-119.
iii) Daniel Katz and Ezra Stotland, "A Preliminary Statement to a Theory of Attitudinal Structure and Change,"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Formation of the Person and Social Context. (New York: McGraw-Hill, 1959), pp. 423-427.

住民의 社會變動에 대한 選好(preference), 人間에 대한 信念(faith in people) 및 未來에 대한 選好等의 問題에 자극이 주어진 경우, 그에 대한 住民大多數의 性向으로 定義한다.

4. 推導力(Leadership) : 여기서는 E.A. Fleishman과 R. Tannenbaum의 定義⁽⁸⁾를 包括하여, 住民의 慮情과 里·洞狀況을 고려한 후 里·洞의 發展目標 또는 變動에 대한 維持·適應을 위하여 發揮되는 住民相互間의 影響力으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推導者란 住民들에게 公式的 非公式式的으로 相互作用過程에서 가장 影響力を 많이 發揮하는 住民으*로*規定한다. 즉 里·洞長을 말한다.

5. 政策支援(Policy Supports) : 政策(policies)이란 말은 여러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어 明確히 定義되는 既念은 없다. 그러나 政策이란 「政治的 諸引體(potitical collectivities)가 社會變動을 誘發, 團導, 加速化 또는 鈍化시키기 위하여 使用하는 모든 手段」(instrumentalities)⁽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本論文에서는 政策支援을 政治的 諸團體 特히 行政府가 農村社會變動을 誘發, 引導, 加速化 또는 鈍化시키기 위하여 農村住民에게 提供하는 教育的 技術的 金錢的 및 行政的 諸手段으로 規定한¹⁰.

6. 社會構造的 特性(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 社會構造란 「人間과 人間, 集團과 集團의 相互關係 속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秩序 또는 類型」⁽¹⁰⁾이다.

그리고 社會構造的 特性이란 보다 廣範한 意味로서, 人間相互間의 關係속에서 나타나는 秩序 뿐만 아니라 地域의 特性도 包含된다.

本論文에서는 非組織的 自然的 集團 또는 社會下部體系인 里·洞의 위 定義에 의한 社會構造와 地理的 特性를 包括하여 社會構造의 特性으로 定義한다. 예를 들면 家族關係, 職業構造, 人口의 流動性 및 自然的인 特徵등이 포함된 의미이다.

第2節 刷新에 關한 接近法(分析單位)

이 刷新에 關한 接近法으로서는 1) 心理學的 接近法, 2) 社會學的 接近法 및 이 兩者的 長點을 結合하여 주는 3) 社會心理學的 接近法等이 있다. 여기서는 本研究의 分析水準인 社會心理學的 接近法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고찰해 보기로 한다.

社會現象 特히 刷新에 關한 心理學的·社會學的 接近方法은 研究對象이 單一分析水準(a single level of analysis)인 경우에만 有用한 研究가 可能하게 된다.⁽¹¹⁾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 社會變動에 關한 研究는 單一分析水準에서만 局限시켜 研究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行態와 社會環境은 密接한 相互作用에 의하여 相互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分離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단일 單一分析水準에 局限시켜 刷新에 關한 研究를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分析上 또는 說明化的 便宜를 위해 다른 水準의 變數에 대한 考察이 同時に 必要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心理學者들이 刷新에 關한 研究에서 重要視하는 個人的 態度, 價值觀, 性向 또는 行動「派閥」과 같은 變數를 正確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變數들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는 社會構造의 變數들도 同時に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個人的 態度, 價值觀, 性向 및 行動「派閥」의 變化에 關한 研究는 이같은 變化가 發生하고 있는 社會文化의 脈絡(sociocultural context)속에서 可能하다.

마찬가지로 社會學者들이 刷新 또는 變動研究에 있어서 重視하는 社會的 制度의 類型에 관한 變化도 心理學的 要素와 社會學的 要素의 社會的 相互作用(social-interaction) 過程속에서만 可能하게 된다.

그러므로 社會變動 특히 刷新에 關한 意義있는 研究를 위해서는 훌륭한 「모델」과 위의 두 接近法

(8) i) Edwin A. Fleishman, *Leadership Opinion Questionnaire* (Chicago: Ill.,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1960), pp. 306-417.

ii) Robert Tannenbaum, Irving R. Weschler, and Fred Massarik, *Leadership and Organization: A Behavioral Approach*, (New York: Mc Graw-Hill Book Co., 1965), p. 24. 參照

(9) Henry Teune, "Public Policy: Macro Perspectives," in Zaltman(eds.), *op. cit.*, p. 239.

(10) 吳甲煥, 社會의 構造와 變動(서울: 博英社, 1974), pp. 23-30.

(11) Zaltman, *op. cit.*, p. 14.

을連結시켜 주는 接近法이 社會心理學의인 接近方法(Socio-psychological Analysis or Approach)이다.

社會心理的 接近法은 人間의 行態(behavior)와 社會體系의 機能(functions)이 交叉하는 地點에서 社會變動을 把握 分析하려 한다.

이 接近法의 長點을 要約해 보면,

첫째 社會의 並會文化的 制度와 이를 構成하고 있는 構成員間의 信念體系 또는 價值體系間의 關係를 說明해 줄 수 있고,

둘째 個人的 必要(needs) 또는 認知(perceptions)와 社會體系의 屬性(properties)間의 關係를 分明히 해주며,

셋째 社會의 影響(influence)의 過程을 發見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 社會의 影響의 過程이라 함은, 社會體系의 어떤 集團이나 組織이 定한 規範(norms)이 어떠한 形態의 「콤퓨니케이션」過程과 어떠한 形態의 權威過程을 通하여 그 構成員에게 傳達되고 影響을 미쳐 誘因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렇듯 刷新에 대한 社會心理學의in 接近方法은 가장 적절한 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社會心理學의in 接近法에 의하여 대부분의 1) 刷新의 過程(processes), 2) 刷新의 內容(contents) 및 3) 刷新의 局面(phase)等에 關한 研究가 이루어져 왔음은 Zaltman은 강조하고 있다.⁽¹³⁾

以上에서 社會變動 또는 刷新에 대한 3가지 接近方法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筆者는 韓國農村의 刷新에 관한 理論的 考察을 위하여 分析水準(Level of Analysis)이 各各 다른 變數들을 同時에 選定하기 위하여, 社會心理學의in 接近方法에 의하여 問題를 分析, 把握하려 한다.

第3節 變動과 刷新

前節에서 社會變動을 「社會體系(social system)

의 構造와 機能面에 發生하는 變更의 過程」으로 規定한 바가 있다.

Rogers는 이러한 意味의 社會變動은 靜態的인 概念이 아니라, 始終을 區分할 수 없는 繼續的인 過程으로 把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⁴⁾ 다만 分析便宜上 또는 研究의 便宜를 為하여 社會變動의 繼續的인 過程을 임의로 區分할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T. Parsons는 社會變動을 1) 體系內의 相互作用과 體系外部를 싸고있는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의한 體系維持過程 및 2) 構造自體의 根本的要素의 變更에 의하여 體系自體를 現象과 다르고 새로운 狀態로 變更시키는 作用으로 區分하여 規定하고 있다.⁽¹⁵⁾

한편 Cancian은 變動을 1) 體系內部의 變動과 2) 體系自體의 變動으로 區分하고 있다.

Cancian이 말하는 體系內部의 變動이라 함은 體系에서 發生하는 分化過程의 結果가 體系自體의 基本目標나 必要(needs)에 까지 影響을 주지 않는 變更을 의미하며, 體系自體의 變動이란 이 分化過程이 體系의 自體의 變動이란 이 分化過程이 體系의 基本目標나 必要에 變更을 초래할 때 이 變更을 뜻한다.⁽¹⁶⁾

그밖에 많은 학자들이 社會變動의 概念定義를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으나, 위의 Rogers, Parsons, Cancian 및 Barnett, Hagen, Aikin等의 理論을 綜合하여 社會變動에 關한 Paradigm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면 社會變動과 刷新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이에 대한 說明은 다음의 <圖 1>이 잘 보여주고 있다. <圖 1>에 의하면 社會體系 또는 下部體系의 内部 또는 外部에서 體系를 變動시키려는 推進力(internal or external impetus)이 發生하여 體系内部 또는 體系自體의 構造나 機能面에 動搖(disturbance)現象을 일으키게 된다. 이 體系内部 또는 體系自體에 發生되는 動搖는 體系의 安定과

(12) *Ibid.*,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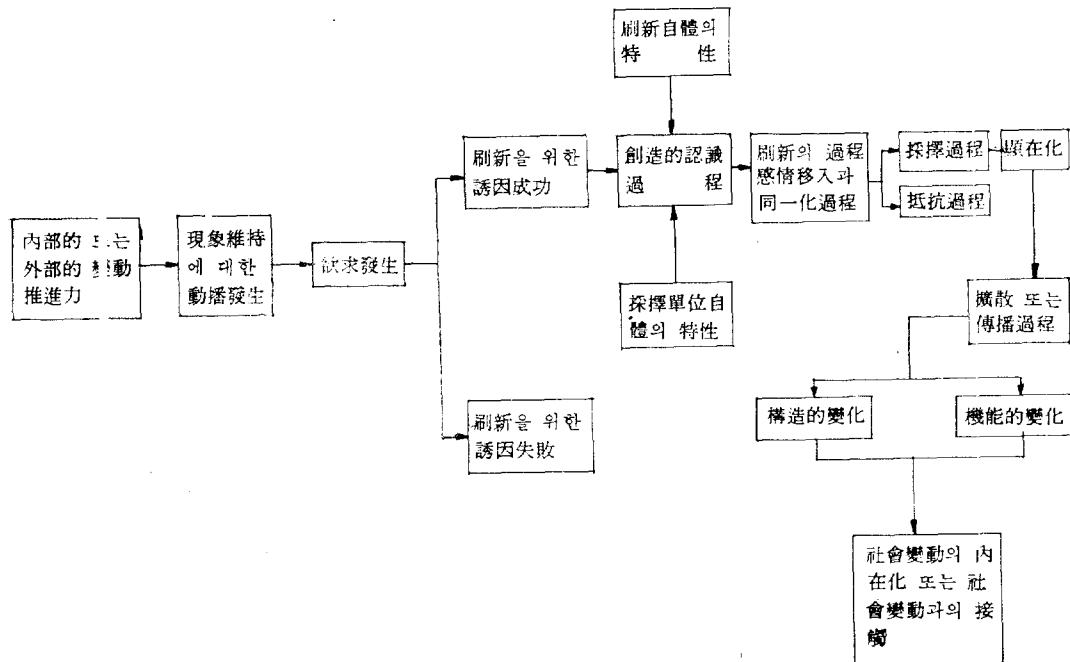
(13) *Ibid.*, p. 15

(14) *Ibid.*, p. 76.

(15)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New York: Prentice-Hall, 1965) Chapter. I.

(16) F. Cancian, "Functional Analysis of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5, (1960), pp. 813-826

〈圖 1〉 社會變動研究의 綜合的 Paradigm⁽¹⁷⁾



內部의 外部의 推進力에 대한 維持 適應을 위하여
多樣한 欲求發生(wants)를 초래케 한다.

이 欲求發生의 段階에 이르기 되면 體系는 體系의
維持와 安定을 위하여 刷新을 積極的으로 受容
하여 誘因(incentives)을 줄 것인가, 아니면 抵抗
할 것인가를 決定하게 된다.

여기에서 社會變動과 刷新의 關係가 明白해짐을
알 수 있다. 〈圖 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刷新은
社會變動過程의 核心(core)이다.

계속해서 社會變動過程을 說明해 보면 刷新을
위한 2分한 誘因이 주어지면 다음 段階로 創造的
的認識過程(creative cognitive process)에 이르
게 된다. 이 創造的 的認識過程에서는 刷新自體의
屬性(at tributes of the innovation), 즉 새로운
觀念, 知識, 技術 및 行動樣式等의 屬性과 採
擇을 行하는 單位 또는 體系의 屬性(attributes

of the unit of adoption)間의 相互作用이 發生
한다.

創造的 的認識過程에 의해 刷新의 屬性과 採擇單位
의 屬性間에 活發한 相互作用의 過程에 의해 具體
的인 刷新의 內容이 決定되면 다음 變動過程인 刷新
의 過程(process of innovation)으로 옮겨지게 되
는데 이 段階에서는 刷新이 採擇單位의 感情에 移
入(empathy)되는 過程이며 同一化(identification)
되어가게 된다. 이 刷新의 過程에서 刷新이 繼續
해서 採擇될 것인가 아니면 抵抗을 받을 것인가가
決定되는 段階이다. 따라서 社會變動過程中 刷新
의 過程이 社會變動의 力動的인 核心을 차지하고
있다⁽¹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變動에 關한 研究에서 特히 重要視되는 部
分의 하나가 刷新의 採擇過程에 關한 研究와 刷新
의 抵抗過程에 關한 研究로서, 特히 刷新에 대한

(17) Nan Lin & G. Zaltman, "Dimension of Innovations," in Zaltman, (eds.), *op. cit.*, p. 95.

(18) J.H. Grambois,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Family Decision Making Proces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Educators Conference*, 1964), p. 4 as quoted by Zaltman, (eds.), *op. cit.*, p. 77.

抵抗問題⁽¹⁹⁾는 1. 原因과 解消方法이 研究의 총점이 되고 있다.

또한 刷新의 3擇過程은 '說得(persuasion)과 評價(evaluation)의 過程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段階에서 個人 또는 採擇單位는 스스로 刷新을 採擇할 것인가와 問題를 決定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刷新의 采擇決定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서는 個人 또는 單位自體의 基本欲求, 創造力 또는 personality 등이며 대개 最初의 采擇者는 體系內의 變動指向性을 지닌 指導集團이 되는 경우가 많다.⁽²⁰⁾ 여기에 指導力과 刷新과의 重要한 關係가 成立된다.

指導集團 또는 變動指向의 個人에 의하여 刷新이 采擇되면, 그 다음段階는 刷新이 體系內部와 外部에서 共に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 過程을 刷新의 擴散過程 또는 傳播過程이라 한다. 刷新의 擴散 또는 傳播過程이라 함은 采擇單位 또는 個人과 潛在的 采擇單位(potential adopter)와의 部分的相互作用。 따라 後者에 의하여 刷新의 采擇이 發生하기 시작하는 現象을 意味한다.⁽²¹⁾ 따라서 이 過程은 采擇決定를 내린 個人的 單純한 合計(summ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刷新의 擴散結果 해당 社會體系의 構造와 機能에 變更을 초래하게 되며, 이 變更은 體系內에 在內化 되거나 豐系와 繼續적인 接觸을 하게 됨으로써 刷新의 過程은 끝나게 된다. 이처럼 完全히

體系內部에 在內化 되었거나, 繼續해서 接觸을 갖게되는 刷新은 다시 體系變動의 内部的 推進力이 되어 새로운 刷新의 繼續的인 采擇擴散을 可能하게 해준다.

이상에서 社會變動의 主要過程과 刷新의 關係 및 刷新自體의 主要過程을 살펴 보았다.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社會變動의 核心의 過程으로서의 刷新에 대한 가장 重要한 issues는 <圖 1>의 1) 創造的 認識 過程과 2) 采擇過程의 問題 및 3) 刷新의 擴散 또는 傳播過程이라 하겠다.

1. 刷新의 性格

社會變動過程의 核心으로서의 刷新의 性格에 관하여는 많은 學者들의 論議의 對象이 되어 왔다.

刷新의 性格들 중에서 最近에 새롭게 發見된 性格 및 重要한 性格 몇 가지만 簡略하게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1) 費用(cost) : 費用은 刷新의 重要한 屬性 중의 하나로서 代表的인 形態가 資金(financial)의 문제이다. 이 資金은 또한 初期費用(initial)과 繼續(continuing)費用으로 區分될 수 있다.⁽²²⁾ 社會의 費用(social cost)도 費用의 한 形態이다.⁽²³⁾

(2) 投資에 대한 補償 : 이는 刷新의 采擇을 위해 投資를 한 경우, 그 補償의期間, 配分, 크기 등과 關聯된 刷新의 性格으로서 대체로 個人的 教育, 所得, 成就動機 및 社會的 地位等과 밀접한

(19) 1) Goodwin Watson은 그의 論文 "Resistance to Change"에서 變動에 대한 저항요인을 1) 個人的 저항요인과 2) 社會體系의 저항요인 들로 나누어 個人的 要因으로서 ① Homeostasis, ② Habit, ③ Primacy, ④ Selective Perception and Retention, ⑤ Illusion of Impotence, ⑥ Supergo, ⑦ Self-Distrust, ⑧ Insecurity and Regression, ⑨ Deprived and/or Anxious 및 ⑩ Other Personality Factors等으로 나누고 社會體系의 抵抗要因으로는 ① Conformity to Norms, ② Systemic and Cultural Coherence, ③ The Sacrosanct, ④ Rejection of "Outsiders," ⑤ Hierarchy, ⑥ Affluence and Leeway 및 ⑦ Restricted Communication等으로 나누어 考察한 뒤 刷新의 屬性을 檢討하면서 抵抗解消方案을 說明하고 있다.

ii) 이도 도 James S. Coleman이 "Conflicting Theories of Social Change"라는 論文에서 抵抗要因을 檢討하고 있으며,

iii) 吳月煥教授도 그의 著書 「社會의 構造와 變動」에서 抵抗要因으로 文化的 抵抗등 5가지를 들고 있다.

(20) Grambs, *op. cit.*, p. 4.

(21) P.M. B au,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New York: John Wiley & Sons, 1964), p. 139.

(22) F.C. Fligel and J.E. Kivlin, "Attributes of Innovations as Factors in Diffus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November), pp. 235~248.

(23) *Ibid.*, I p. 253~248.

關聯은 뱃고 있는 屬性이므로, 一般的으로 저소득 층은 刷新에 대한 補償을 받을 기대가 크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刷新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적인 경우가 많다.⁽²⁴⁾

(3) 效率性 : 刷新의 能率性(efficiency)에 관한 屬性은 i) 時間節約 및 ii) 人間의 不安全感 解消와 關聯된 屬性이다.⁽²⁵⁾

(4) 危險한 不確實性 : 이는 刷新이 가지고 있는 危險性·效果를豫測할 수 없는 不確實性을 말한다.

(5) Communicability : 이는 刷新에 대한 說明이나 誘示하는데 있어서 이를 容易하게 하거나 困難하게 만드는 刷新自體의 總體的 效果를 의미한다.

(6) 合理性(Compatability) : 刷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刷新自體의 性格이 現狀을 補完, 補充 또는 代替할 수 있는 性格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다.⁽²⁶⁾

(7) 複雜性(Complexity) : 이는 刷新自體에 内包되어 있는 i) 觀念(idea)의 複雜性 및 ii) 施行上の複雜性가 뜻한다.

(8) 批對的利益性 : 어떤 種類의 刷新이 餘他種類의 刷新보다 더 重要(critical)하고 規模가 클 때, 더 쉽게 採擇된다는 特徵을 말한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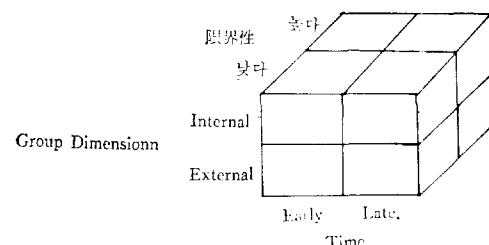
(9) 極定性(Terminality) : 이는 一定한 時間이 흐르고 난 후면, 刷新으로서의 性格이 消滅되는 性格을 지칭⁽²⁸⁾하는 것으로서 代表的인例를 들면 여성의 옷에 대한 유행과 社會體系內의 각종 運動이 그것이다.

(10) 可分性(Divisibility) : 刷新中에는 한번 受容採擇되면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刷新은 最終決定을 하기 전에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部分的으로 抽出, 檢證可能한 것들이다.⁽²⁹⁾

E.M. Rogers等은 이를 “하나의 刷新이 限定位範圍에서 試驗될 수 있는 程度”로 定義하고 있다.

이 문제는 集團의 内部的(또는 感情的) 機能과 關聯된 刷新과 刷新의 外部的(또는 任務와目標)機能은 어느 것이 더 限界的이냐 하는 問題 및 採擇되는 時間의 差異의 關係는 어떠한가 하는 것과 關聯된 性格이다. 이를 간단히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圖 2〉 刷新의 次元關係



이상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刷新의 性格 또는 屬性에 대하여 論述해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注意할 점은 위에 열거된 性格들이 새로운 特徵만을 包含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潛在的 採擇者의 認知過程은 意思傳達通路, 社會的 環境 및 潛在的 採擇者 自身의 人的, 社會的, 經濟的, 또는 文化的 性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採擇者의 認知過程은 刷新自體의 概念規定 및 解釋에 對한 重大한 役割을 하고 있다. Barnett와 Hagen은 刷新의 解釋에 있어서 認知過程은 가장 重要한 過程이라고 지적하고 社會心理學的인 觀點에서 다음과 같은 圖式을 만들었

(24) Rogers, *op. cit.*, p. 224.

(25) Barnett, *Innovation: The Basis of Cultural Change* (New York: McGraw-Hill, 1953), p. 132.

(26) Rogers, *op. cit.*, p.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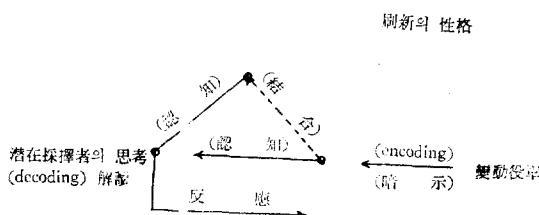
(27) K. Knight, "A Descriptive Model of the Intrar-Firm Innovation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ol. 40 (October, 1962), pp. 478~496.

(28) J.L. Walker,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2 (1969), pp. 880~899.

(29) E.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2), pp. 367. as quoted Ronald G. Havelock, *Planning for Innovation: Through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Ann Arbor: Michigan, The Univ. of Michigan, 1973), p. 8~40.

다. ⁽³⁰⁾

〈圖 3〉 思考過程으로서의 認知



〈圖 3-3〉은 刷新의 source와 潛在的 探擇者間의 思考過程으로서의 認知의 役割을 보여 주고 있다. 즉 刷新의 source를 들면 變動役軍이 刷新에 대한 一團의 暗示(signs)나 단서(cues)를 주면 潛在的 探擇者は 그의 思考程程에 의하여 暗示를 抽象化하여 刷新에 對한一般的性格을 認知하게 되고

同時에 그의 解讀過程을 通하여 刷新의 意味를 解釋한 후 이에 대한 反應을 보이기始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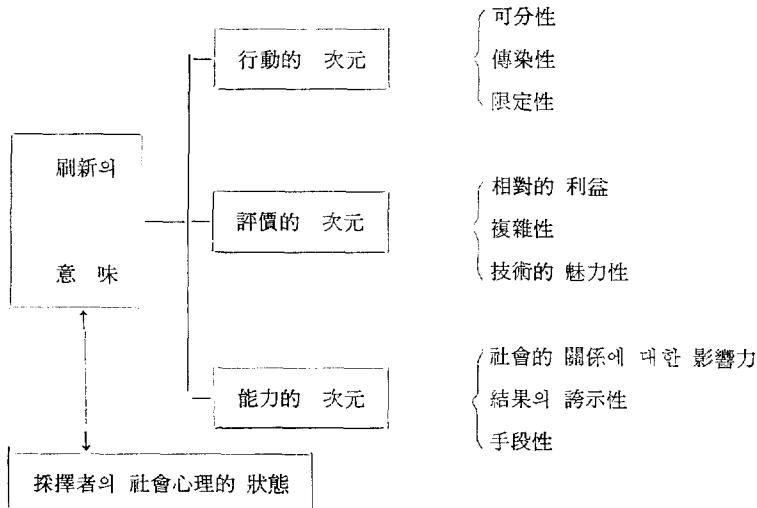
이 思考過程에서 最終的으로 나타나는 意味(meaning)解釋은 變動役軍의 最初의 意圖와 完全히 一致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Osgood은 刷新의 意味構成을 위하여는 3가지 基本的 次元이 必要하다고 주장하고 그 세 basic次元으로, 1) 行動的 次元(activity), 2) 評價的 次元(evaluation) 및 3) 能力的 次元(potency)等을 들고 있다. ⁽³¹⁾ 여기에 그가 說明한 刷新의 意味構成을 위한 次元과 각 次元에 속하는 代表的 性格들을 圖式化해보면 다음과 같다.

2. 探擇單位의 性格

刷新 즉 새로운 技術, 觀念, 組織形態等을 남보다 먼저 探擇하는 사람 또는 集團은 어떤 特性

〈圖 4〉 刷新의 意味構成을 위한 基本的 次元과 性格⁽³²⁾



을 가지고 있느가? 특히 아직도 다른 사람이나 集團이 既存의 方式에 침착하고 있는데, 스스로 앞장 서서 刷新을 探擇하는 사람과 集團에 關한 研究는 刷新의擴散 또는 傳播(diffusion)를 理解하는데, 重要한 問題이다. 또한 探擇者的 性格은 創

造的 認知過程에서의 刷新의 性格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刷新의 性格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刷新의 探擇種類, 크기, 期間等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問題로 지적되고 있다.

3. 刷新와 社會構造의 特性

(30) E.E. F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Homewood Ill., Dorsey Press, 1962), p. 219.

(31) C.E. Cigood, G.J. Suci, and H. Tannenbaum,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57. p. 248.

(32) Lin & Zaltman, *op. cit.*, p. 114.

社會變動과 社會構造는相互密接한 關係를 具하고 있다. 이 關係는 刷新의 擴散過程, 組織的 意思決定過程, 國家發展計劃 및 社會變動分野에서 特히 重要視된다.

그리고 本研究에서는 刷新의 擴散過程과 社會構造間의 關係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社會構造의 特性이란 이미 本章 1節에서 規定한 바와 같다. すなはち 刷新의 擴散 또는 傳播(diffusion of innovation)은 “刷新이 社會體系의 構成員들에게 퍼져 나가는 過程”⁽³³⁾이다. 다시 말하면 刷新의 擴散은 新しい messages가 흐르는 communication의 한 形態이다. 이 새로운 messages가 바로 刷新이다. 刷新은 繼續的(over time)으로 一定한 通路들(channels)을 通하여 社會體系의 構成員들에게 傳達된다.⁽³⁴⁾

그런데 刷新의 傳達通路 및 傳達되는 形態는 社會構造의 特性과 密接한 關係이 있다. 社會構造는 社會體系(social system)의 斷面圖이다. 다시 말해서 刷新의 擴散은 社會體系內의 構成員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社會體系는 共同目標와 關係된 問題解決을 위하여 結集한 單位들의 集合體(collectivity of units)를 의미한다. 體系內의 單位는 어느 정도 分化된 形態의 構造를 지니고 있다. 이 分化는 社會的地位, 權力等의 變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要因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一定한 組織 또는 社會形態가 構造다. 예를 들면 公式組織은 分化된 形態의 社會構造를, 反面에 非公式集團(informal group)은 어느 정도 덜 分化된 社會構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덜 分化된 非公式集團이라 할지라도 參與度, 權力關係等의 要因에 의하여 어느 정도 社會構造의 生格을 區分할 수 있게 된다.⁽³⁵⁾

그리고, 刷新의 諸過程 特히 擴散過程 研究에 있어 그리고 社會構造의 特性中 地理的 形態, 位置 및 附近環境과도 刷新은 密接한 關係가 있다. 즉 刷新의 採擇傳播 擴散의 難易性 問題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條件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에 대하-

여 Katz는 “刷新에 대한 潛在的 採擇者的 問題를 包含하고 있는 社會構造의 特性에 대한 知識缺이 刷新의 擴散에 關한 研究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까지 극언을 하고 있다.⁽³⁶⁾

4. 刷新과 政策支援

이미 本章 第1節 概念定義에서 政策支援에 대한 概念을 規定한 바와 같이 政策이란 “社會變動을 誘因, 指導, 加速化 또는 純化시키기 위하여 諸政治的集合體가 使用하는 手段들”이다. 이러한 意味의 政策은 單一目標 또는 複數目標(goals)를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政策은 社會體系 自體의 여러 가지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들을 決定하는 行為이다.

이와 같은 意味의 政策支援은 體系外部에서 주어지는 變動推進力(圖1 參照)일 수도 있고, 體系自體의 變動推進力에 의한 積極的인 誘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 및 後進國은 國家發展 또는 近代化를 위한 政府의 先導的役割이 強調되고 있으므로, 政府로부터 提供되는 政策支援은 體系自體로부터 誘因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體系外部에서 他律의으로 提供되는 경우가 大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各種 社會體系를 刷新시키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끝으로 政策支援 自體가 刷新의 内容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政治的集合體가 變動시키고자 하는 社會體系 또는 下部體系에 새로운 知識, 技術, 觀念 또는 行動方式의 形態를 지원하여 그 體系가 이를 直接 採取하게 되면, 政策支援自體가 곧 刷新이 된다. 그러므로 刷新과 政策支援의 區別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第4節 假說 및 假說的 因果關係 模型

本節에서는 앞에서 論議된 理論의 背景에 依하여 韓國農村地域의 刷新을 위한 理論的 模型定立을 위하여 몇 가지 假說을 定立하고자 한다. 이 假說定立을 위하여 主要한 概念的, 實證的 基礎를

(33) E.M. Rogers,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hange,” Zaltman, (eds.), *op. cit.*, p. 76.

(34) Rogers and S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 A Cross-Cultural Approach*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p. 211.

(35) *Ibid.*, p. 77.

(36) Ronald G. Havelock, *Planning for Innovation: Through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Ann Arbor: Michigan, The Univ. of Michigan, 1973), pp. 8~43

簡明하게 言及하노니 同時に 韓國農村地域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1) 時代의 諸特性에 관해서도 考察하려 한다.

筆者は 刷新에 關한 代表的 理論과 韓國의 狀況을 고려하여 假說定立을 위한 主要變數(variables)로서 다섯개를 採用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다.

- (1) 農村里・洞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attitude toward change)
- (2) 農村里・洞內 住民指導者와 的 指導力(leadership)
- (3) 農村里・洞의 社會構造의 特性(characteristics of social structures)
- (4) 政府의 政策支援(policy supports)
- (5) 刷新의 程度(degree of innovations)

1. 假說

1) 假說定立의 前提條件

앞에서 抽出한 다섯개의 主要變數를 가지고 假說을 定立하고 나아가서는 이 定立된 假說들을 綜合의으로 考察할 因果關係模型을 提示하기 위하여 몇 가지前提條件의 設定을 必要로 한다.

첫째는 Path analysis라는 分析方法의 導入에 要求되는 것이다.

둘째는 主要變數間의 因果關係設定을 위한前提條件으로서 다섯개의 變數中 農村里・洞의 社會構造의 特性(characteristics of social structures)과 政府의 政策支援(policy supports)의 두 變數를 完全히 外部의 要因으로서만 決定되는 外在的變數(exogenous variables)로 假定한다.

各 變數들간의 關係에서 假設導出을 위한 상세한 說明은 紙面關係上 約하기로 하고 變數들간의 假設만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2) 社會構造의 特性과 政策支援

여기서 問題視하는 點은 社會構造의 特性과 政府의 政策支援과 關係에 關한 것이다. 즉 社會構造의 特性 때문에 政府의 政策支援이 決定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政策支援에 의하여 社會構造의 性格이 決定되거나 되는지 하는 問題이다.

刷新 및 變動을 研究하는 學者들에 의하여 이兩者間의 關係에 대한 因果關係의 考察이 이루지는 것은 거의 없나,

一般的으로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의 行政府의

政策支援은 그 國家의 政治制度와 政治指導者の性格 또는 政策方向에 의하여 決定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社會構造가 未分化되고 不均衡關係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部門에 政策支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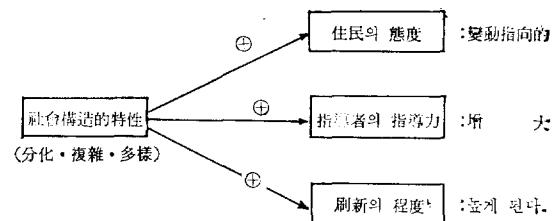
그리므로 政府의 政策支援과 社會構造의 特性間에는 因果關係가 成立되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兩變數間의 關係는 國家마다 量的인 差異는 있겠으나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

3) 社會構造의 特性・住民의 態度・指導者の 指導力 및 刷新假說 1 :

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住民을 刷新으로 誘因할 수 있는 指導者の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며 또한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이 假說을 容易하게 理解될 수 있도록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圖 5〉 假說圖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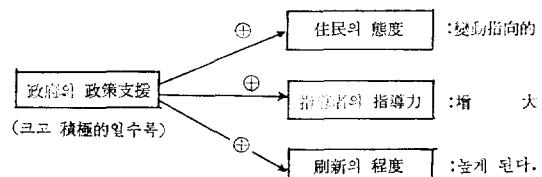


4) 政策支援・指導者の 指導力・住民의 態度 및 刷新

假說 II: 政府의 政策支援이 強く 積極의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며, 또한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이 假說을 같은 方法으로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圖 6〉 假說圖表 II



假說 I, II에서 指導者의 指導力, 住民의 態度와
刷新間, 因果關係는 自然的으로 다음과 같은 假
說을 設定한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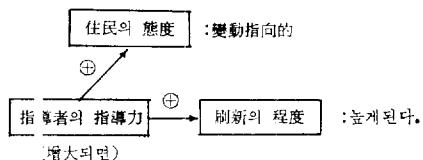
假說 III

指導力의 指導力이 增大되면 增大될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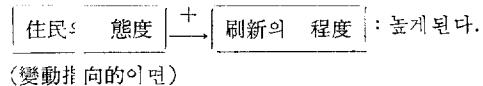
假說 IV

住民의 태도가 변동指向의이고,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圖 7〉 假說圖表 III



〈圖 8〉 假說表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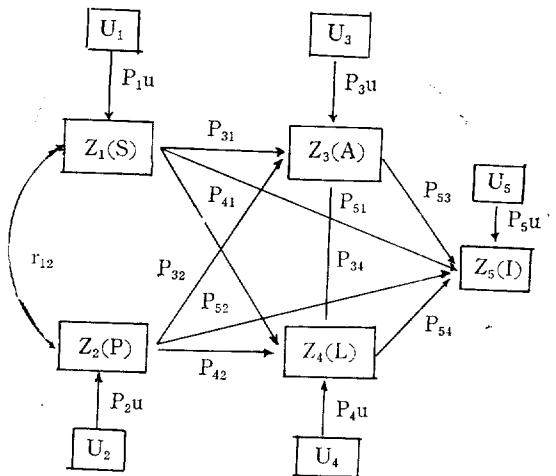


3. 假說的 因果關係模型

위에 導出된 4개의 假說에 의하여 5個變數의
假說의 因果關係模型 (hypothetical causal relationships) 즉 path diagram을 作成하여 보면 〈圖 9〉
와 같드.

이 Diagram에서 보면 社會構造的 特性 (Z_1)과 政府의 政策支援 (Z_2)은 다른 어느 變數에게서도 因果關係의 影響을 받지 않는 獨立變數(exogenous variables)이다. 그리고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 (Z) 指導者の 指導力 (Z_4)은 因果關係에 의하여 影響을 받기도 하고 同時に 영향력을 미치는 從屬變數(endogenous variables)이며, 刷新 (Z_5)은 완전히 다른 變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완전한 從

〈圖 9〉 假說的 因果關係 Diagram



[보기] I.

[보기] II.

$Z_1(S)$ ：社會構造的特性 → 因果關係方向

$Z_2(P)$ ：政策支援 \curvearrowleft ：相關關係

Z₃(A) : 住民의 態度

$Z_4(L)$: 指導者의 指導力

$Z_5(I)$: 刷新의 程度

U_i : 外在的 變數

屬變數(endogenous variable)이다.

그리고 獨立變數들에 대하여는 完全히 體系밖의 어떤 要因에 의하여 (outside variable)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獨立變數들간에 서 因果關係가 成立하지 않는다. (87)

이 Path Diagram에 따라 Path Model을 定立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ath Model이란 體系內 變數들간의 假定的 因果關係 및 非因果關係(non causal)間의 關係를 表示해 주는 構造的 方式의 集合이다. ⁽³⁸⁾

因果關係모델 (39)

(37) Kenneth C. Land, "Principles of Path Analysis," in E.F. Borgatta & G.W. Bohrnstedt(eds.),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1969), p. 6.

(38) *Ibid.*, p. 7.

(39) 위의 모델은 Multistage, Multivariate Path Model이므로 그一般的公式은

$r_{ij} = \sum_k P_{ik} r_{jk}$ 로 表示된다. 여기서 i, j 는 두 變數를 지칭하고 k 는 Z_i 에 直접적으로 Paths가 연결되는 諸變數의 指標(index)이다.

〈表 2〉 指導力測定指標

指 標	R. Tannenbaum의 指標
組織的 能力	指導者의 性格
	住民의 態度
	"
	狀 態
	指 導 者
	"
情的配屬能力	住 民
	狀 態
	指 導 者
	"
	"
	住 民
	指 導 者

로 政策支援・刷新 및 社會構造의 特性을 定하고 이들의 概念定義에 따라서 65년 以後부터 74년 7月末 現在 가지의 期間동안 政府 또는 里・洞 自體가 전개했는 代表의in 諸事業・運動等을 提示하여, 計量的으로 調査한 후 要因分析(Factor Analysis)에 의하여 각 變數의 指標를 구했다.

第2節 變數選定을 위한 要因分析

筆者は 우리나라 農村刷新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變數로서, ① 住民의 態度, ② 指導力 ③ 社會構造의 特性, ④ 政策支援 및 ⑤ 刷新에 대하여 論한 바 있다. 이 중에서 住民의 態度測定과 指導力測定은 學者들이 確立해 놓은 質問項目에 의하여 調査했기 때문에 間接의으로 信賴性과 妥當性을 갖춘 調査方法이라 할 수 있으므로 要因分析에서는 除外했다. 대신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이들 變數의 보다 正確한 測定을 위하여 間項分析(Item Analysis)을 했다.

그러나 政策支援의 內容面에는 現在 우리나라 農村發展 또는 刷新을 위한 諸活動에서 뿐만이 區分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區分하기 위하여 要因分析中 共因分析(Common Factor Analysis)⁽⁴³⁾을 사용했다. 특히 이 要因分析은 區分이 극히 어려운 刷新과 政策支援과의 區分을 可能하게 해 주었다.

筆者は 分析過程의 回轉의 基準值가 되는 Eigen value에 의하지 않고 이미 언급한 3개 變數의 正確한 構成要素를 찾기 위하여, 4개 차원단 회전시켰는데, 이 4個次元(dimensions)의 總變因量(total variance)의 百分比는 32%로 나타나고 있다.

〈表 3-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첫번째이자 要因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指標들을 보면, 家族計劃運動(.72), 營農教育(.67) 文盲退治運動(.61) 指導者教育(.58), 診療事業(.53), 農家貯蓄運動

〈表 3〉 4개 次元과 42個指標의 要因值

No	指 標	I	II	III	IV	Communalities
1	意思決定類型	(.26)				.11
2	家口當月平均所得			.33	.40	.30
3	地形上特徵		.49		-.42	.44
4	都市와의 隣接性		.39			.15
5	主要 公・私機關數		.61			.42
6	姓氏分化程度				-.51	.32
7	出身地人口／全里洞人口		.55		-.42	.51
8	農家／全體里洞戶數		.79			.69
9	里洞民參與度			-.31	.35	.26

(43) R.J. Rummel, *Applied Factor Analysis* (Evanston: Northwestern, 1970), pp. 101-112. 參照

No	指標	I	II	III	IV	Communalities
10	文盲率				.50	.33
11	家口當人口數	(.28)				.15
12	財源投資(70~74)			.44		.34
13	指導者教育實施度	.58				.42
14	婦女教育 " "	.37				.16
15	營農教育 " "	.67				.46
16	診療事業 " "	.53				.32
17	道路鋪修率				.49	.27
18	河川・水溝整備率		.45		(.29)	.33
19	마을道路擴張率	(.28)			.54	.44
20	上水源開發		-.44			.27
21	共同洗浴場開發			(.28)	.31	.24
22	화장실改造成	.43		.32	.40	.44
23	부엌 및 담장改造	.42			(.27)	.29
24	燃料轉換度			.53		.29
25	電氣施設		(.26)			.19
26	里(洞)共同倉庫			.33		.21
27	지붕改築			.41	.32	.33
28	農業用水施設			.42		.32
29	農業機械化	.32		.39		.28
30	耕地整理		49			.27
31	集團栽植面積			.42		.27
32	賃金所得			.59		.37
33	病蟲害防治			.45		.42
34	農外所得			.64		.43
35	農家貯蓄運動	.48				.27
36	도박감시運動	.45				.25
37	주탁감시運動	.40	(-.29)			.25
38	미신타기				.51	.33
39	家族計劃運動	.72				.58
40	家族儀禮遵則運動	.32				.20
41	食生活改善	.40		.37		.31
42	文盲退治	.61				.40
	% of Total variance	13.08	6.77	5.94	5.16	31.95

i) Common factor analysis with orthogonal rotation

ii) Loadings > .30 이상만 표시함

iii) 밀출친 수치는 각 次元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iv) 要因名

I : 政策支持

II : 社會構造的 特性

III : 刷 新

IV : 不明要因 (unnamed factor)

(.48), 도박감소운동(.45), 화장실改善(.43), 부엌 및 담장改造(.42), 주막감소운동(.40), 食生活改善運動(.40) 婦女教室(.37), 農業機械化(.32) 家庭儀禮遵則實施(.32) 및 意思決定類型(.26) 등이다. ○ 指標中 대부분은 60年代末부터 積極的으로 農村地域을 對象으로 展開해 온 精神的, 教育的, 物質的 諸面의 政策要素들이다. 이들을 다른面에서 보면 우리나라 農村地域을 刷新시키기 위해 精神的, 物質的, 教育的으로 政府가 政策의 으로 支援 || 은 要素들이라 하겠다. 이 指標들이 農村에 대한 行政府의 主要 政策支援內容들이다.

두번째로 要因值가 높게 나타난 次元을 보면 農家/全體里·洞戶數(.79), 主要公·私機關數(.61), 出身地人口/全體里洞人口(.55), 地形上特徵(.4), 耕地整理率(.49), 上水源開發程度(一.44), 市와의 隣接性(.39), 주택감소운동(一.29), 및 電氣設備率(.26)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指標들은 두엇하게 農村地域의 社會構造의 特性에 關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 農家/全體里·洞戶數, 主要公·私機關數, 出身地人口/全體里·洞人口等의 指標는 農村社會의 構造分化에 關한 變數이다.分化가 많이 된 農村地域일수록 都市化되어 가는 過程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農村에 非農家戶數가 많다는 점은 血緣集團으로서의 農村이 붕괴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社會構造의 特性은 刷新과 어떤關係가 있는가 하는 問題는 다음 章에서 分析하려 한다.

다음 세번째 要因值의 次元을 보면, 마을(.54), 賃金所得(.59), 燃料轉換度(.35), 河川·下水溝整備率(.45), 財源投資(.44), 農業用水施設(.42), 集團栽植面積(.42), 지붕改良(.41), 農業機械化(.39), 食生活改善(.37), 家口當月平均所得(.33), 里·洞共同倉庫(.33), 화장실改造(.32), 里·洞民參與度(一.31) 그리고 共同洗濯場(.28)等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이 構成要素들은 現在 우리나라 農村地域에서 住民들이 自力으로 所得增大 또는 生活合理化 環境改善을 위하여 共同으로 시도하고 있는 刷新의 内容 또는 構成要素이다.

한가지 적할 점은, 위 표에 보면 화장실改造, 農業機械化, 食, 生活改善 等은 두 次元에서 要因

值가 同時に .3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現實的으로 政策支援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指標인 同時に 刷新의 主要 内容이 되는 指標들인 것 같다.

마지막 次元의 構成要素를 보면 마을道路擴張率(.54), 미신타파운동(.51), 姓氏分化度(一.51), 文盲率(.50), 道路補修率(.49), 出身地人口/全體里·洞人口(一.42), 地形上 特徵(一.42), 家口當月平均所得(.40), 화장실改造(.40), 里·洞民參與度(.35), 共同洗濯場開發程度(.31), 지붕改良(.32)等으로 모여 있다. 그러나 이 要素들이 두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는 次元이다. 農村刷新에 어느 程度 影響을 미치는 要因의 構成要素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要因을 찾기 困難하므로 不明要因(unnamed factor)로 보고 본 研究에서는 除外한다.

4개의 要因中에서 政策支援(13.08)과 社會構造의 特性(6.77)이 가지는 總 變因量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現在 우리나라 農村刷新의 重要한 變數로서 이 두 要因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第四章 韓國農村刷新에 關한 因果關係分析

第1節 因果關係模型 分析

第二章 4第節에서 定立한 假說의 因果關係模型에 따라 京畿道, 忠南二個道內 69個里·洞을 對象으로하여 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資料의 集合(aggregate)에 의한 5個變數間의 相關關係를 計算하였다. 왜냐하면, 因果關係分析의 가장 基本的인 分析過程이 變數間의 相關關係를 求하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물론, 5個變數를 構成하고 있는 下部變數들은 어느 정도同一한 次元 또는 屬性에 의하여 表現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加重值(weighting)없이 線形的으로 加算(summation)하였다. 그리고 이미 分析單位에서 前提했던 바와 같이 分析單位는 心理學的單位(指導力, 住民의 態度)와 社會學的單位(社會構造의 特性, 政策支援)를 結集(aggregate)하여 社會心理學的單位에 의하

〈表 4〉 5個變數間의 相關關係表

	社會構造的 特 性	政策 支 援	住民의 態 度	指 導 力	刷新의 程 度
社會構造的 特徵	1				
政策 支 援	-.49	1			
住 民 的 態 度	-.48	.39	1		
指 導 力	.37	-.51	-.22	1	
刷 新 的 程 度	-.42	.68	.29	-.32	1

여 分析한 것이 다.

相關關係를 보면, 두 變數間의 相關關係의 絶對
值가 가장 높은 順位로 나열하면,

- ① 政策支援과 刷新의 程度 (.68)
- ② 政策支援과 指導力 (-.51)
- ③ 社會構造의 特性과 政策支援 (-.49)
- ④ 社會構造의 特性과 住民의 態度 (-.48)
- ⑤ 社會構造의 特性과 刷新의 程度 (-.42)
- ⑥ 政策支援과 住民의 態度 (.39)
- ⑦ 社會構造의 特性과 指導力 (.37)
- ⑧ 指導力과 刷新의 程度 (.32)
- ⑨ 住民의 態度와 刷新의 程度 (.29)
- ⑩ 指導力과 住民의 態度 (-.22)

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다시 言及할 점은,

첫째 社會構造의 特性은 社會構造 즉, 非農業
人口, 主要公私機關의 數가 많을 수록 그리고, 都
市와의 隣接率(接觸率)이 高하고, 交通이 便利하고, 電氣施設이
잘 되어 있는 里·洞 일 수록 點數를 높게 하였다.

둘째 指導力은 組織力보다 里·洞住民의 感情의
要素를 크게 배려해 주는 指導者 일 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시 말하면, 組織力이 弱할 수록
反對로 住民의 感情에 대한 배려가 클 수록 높은
點數를 주었다.

세째 住民의 態度에 대한 態度는 變動指向의 일
수록 높은 點數를 부여하였다.

네째, 政策支援은 많을 수록 높게 點數를 주었
으며,

그리고 刷新은 그 程度가 높을 수록 높게 점수

를 주어, 變數間의 相關關係를 電子計算器에 의하
여 計算하였다.

이 相關關係에서 計算된 變數間의 因果關係係數
또는 方向係數(Path Coefficients)를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_{31} &= -35 & (1) \\
 P_{41} &= .16 & (2) \\
 P_{51} &= .04 & (3) \\
 P_{32} &= .11 & (4) \\
 P_{42} &= -.43 & (5) \\
 P_{52} &= -.46 & (6) \\
 P_{53} &= .29 & (7) \\
 P_{54} &= -.26 & (8) \\
 P_{34} &= -.22 & (9) \\
 P_{3u} &= .86 & (10) \\
 P_{4u} &= .85 & (11) \\
 P_{5u} &= .73 & (12)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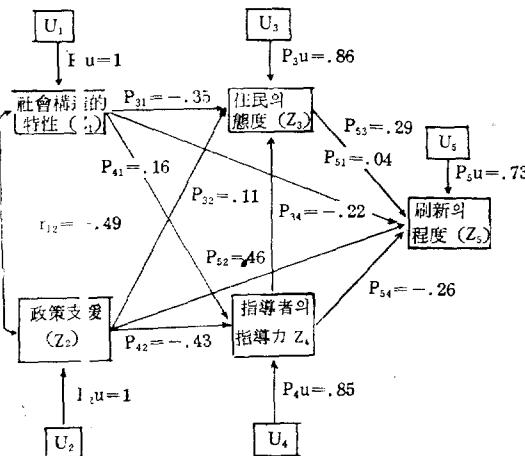
이를 因果關係模型(Causal Model)에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圖 〈10〉에 나타난 각 變數間의 方向係數는 나
타나고 있는 그 數值만으로는 獨立變數와 從
屬變數間의 영향력의 絶對值는 測定할 수는 없
다. (44)

다시 말해서 위 모형에서 보면 獨立變數인 社會
構造의 特性이 從屬變數(Endogenous Variable)인
刷新에 方向係數가 .04라고 해서, 前者가 後者에
게 미치는 영향이 4%정도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相對的인 값에 의하여 獨立變數의 影
響力を 評價할 수 있게 될 뿐이다.

(44) D.R. Hesse, "Problems in Path Analysis and Causal Inference," in Bogatta & Bohrnstedt (eds.), p. cit., p. 36.

〈圖 10〉 假說的 因果關係模型分析表



그리고 이 모형 解析에 있어서 한가지 더 注意할問題는 위의 方向係數가 어느 程度되어야 두 變數間의 關係를 最少限度로 說明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基準과 方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⁴⁵⁾

한편, 위 모형에 表示된 U_1, U_2 는 筆者の假定에 의해 農村의 社會構造의 特性과 政策支援은 農村刷新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는 獨立變數(Exogenous Variables)가 되는 것이므로, 이 變數들은 全的으로 外部要因에 의하여 說明될 것이므로 그 값이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U_3, U_4, U_5 역시 이 모형內 變數外의 外部要因에 의한 特定變數의 說明度이다.⁽⁴⁶⁾

위 模型에서 各 變數에 대한 外部要因에 의하여 說明되는 程度를 計算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主民의 變動에 대한 慢度에 대하여 이 體系變數의 外部要因에 의하여 說明되는 程度는 $(P_{3u})^2 \times 100$ 으로 表示되므로, 約 74% 정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模型體系內의 變數가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慢度에 대하여 說明해 줄 수 있는 정도는 約 24% 정도가 된다.

둘째 二은 方法으로 指導力에 대하여, 體系부의 外部要因에 의하여 說明되는 程度는 $((P_{4u})^2 \times$

(45) *bid*, pp. 39-41.

(46) Land, *op. cit.*, pp. 12-16.

(47) Heise, *op. cit.*, pp. 38-73.

100) 約 72% 정도이다.

세째 體系의 變數가 刷新에 대하여 説明해 줄 수 있는 程度는 約 47%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體系밖의 外部要因에 의하여 説明될 수 있는 程度가 約 53%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 說明할 問題는 因果關係分析에서의 前提原理로서, Residual Variables인 U_1, U_2, U_3, U_4, U_5 들간의 關係에 관한 問題이다. 이 假定을 보면

〈表 5〉 變數에 대한 外部要因의 說明度

社會構造의 特性	100%*
政策支援	100%*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慢度	74%
指導力	72%
刷新의 程度	53%

公式 : $P_{ju}^2 = 1 - R^2$ (R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herefore R^2 = 1 - P_{ju}^2$$

단 : *表는 筆者の假說의 模型定立의 前提에 의한 것임.

① 첫째 U_1, U_2, U_3, U_4, U_5 간에는 아무런 因果關係가 없다는 假定과

② 둘째 이들 U_i 는 自身이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變數를 除外한 다른 變數와의 사이에도 아무런 因果關係나, 相關關係가 없다는 假定이다. 예를 들면, 農村社會構造의 特徵(Z_1)과 U_2, U_3, U_4, U_5 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그러면 위의 分析結果에 따라, 韓國農村의 刷新에 影响을 미치는 諸變數들을 分析해보기로 한다. 이것은 곧 筆者が 세운 假說의 檢證이다.⁽⁴⁷⁾

第2節 假說檢證

1. 社會構造의 特性의 政策支援과 關係

筆者は 模型定立의 前提條件으로서 政策支援과 社會構造의 特徵은 體系模型의 完全한 外部的(Ex-

ogenous) 變數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두 變數間의 關係는 成立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變數에 대하여는 全的으로 外部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P_{u_1} = 1$, $P_{u_2} = 1$) 다 \pm 이 變數間의 相關關係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變數間의 相關關係는 $- .49$ 이다. 이 數值은 5個 變數間의 相關關係中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값이므로, 政策支援과 農村社會構造의 特性間에는 상당히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점이 發見된다.

여기서 $(-)$ 가 가지는 意味는 社會構造가 分化되고 都市와 隔離해 있는 里·洞 일수록 行政府의 政策支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說明해 주는 意味이다. 부연하여, 主要公·私機關數가 많은 里·洞 일수록, 農業人口가 적을 수록, 人口移動이 심한 里·洞 일수록, 都市近郊地域일수록 政府의 教育的·物質的·精神的 支援은 줄어들고 있는 傾向이다. 70年以後의 政府의 政策支援이란 새마을運動을 通한 支援이다. 이 새마을運動에 의한 政府의 支援優先順位는 自立, 自助, 基礎마을順位로 되어있다. 이게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農村의 경우 社會構造가 分化된 里·洞 일수록, 그리고 都市近郊里·洞 일수록 새마을運動이 活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假說 I의 檢證

本論文假說의 내용은 「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住民을 刷新으로 誘因할 수 있는 指導者の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 또한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로서 이제 기에 대한 檢證을 각 因果關係方向(Paths)에 따위 論議하기로 한다.

우선 各 因果關係의 方向係數는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構造의 特性에서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에 \pm 方向係數(P_{31})가 $- .35$ 이고, 社會構造의 特性에서 指導力에 \pm 方向係數(P_{41})가 $.16$ 이며, 또한 社會構造의 特性에서 刷新의 程度에 \pm 方向係數(P_{51})가 $.04$ 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社會構造의 特性의 住民의 態度에 대한 영향을 보면 各變數의 外部的 要因(U_i)에 依한 方向

係數(P_{3u} , P_{4u} , P_{5u})를 除外한 方向係數中 세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社會構造의 特性이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로서 提起되는 것은 方向係數가 $(-)$ 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負($-$)의 方向係數가 意味하고 있는 것을 假說의 内容과相反되는 結果로서 「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住民의 態度는 보다 現狀維持의 傾向이 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社會構造의 分化度가 낮을 수록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는 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매우 特異한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이러한 問題에 대한豫想 또는 理論은 社會構造가 分化될 수록 그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일 것으로 看做되는 테도 不拘하고 韓國農村의 경우는 그 反對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를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現象의 結果인 것으로 짐작된다. 一般的으로 都市化, 工業化, 技術의 進步等에 따라 農村地域에서 이루어졌던 非公式的 協同關係도 그 性格이 變하게 된다. 즉 資本主義 經濟가高度로 發達해 있고 非人格的關係가支配하고 있는 都市形態의 社會構造의 特性을 지닌 里·洞 일수록 農業部門外의 다른 方法에 의하여 貨幣獲得의 意慾을 鼓吹시킨 결과 農村住民들間に 競爭을 極화시키고 歪曲된 利己主義를 助長시켜 農村刷新을 위하 協同을 困難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⁸⁾

다음으로 社會構造의 特性의 指導者の 指導力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各 變數間의 方向係數中 7 번째로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은 微微하다. 그런데 거기서 指摘할 것은 指導者の 住民을 刷新으로 誘因할 수 있는 指導力은 第三章 1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組織力이 弱할 수록 그리고 住民의感情에 대한 配置가 클 수록 높은 點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農村社會와 같은 狀況下에서 보면 높은 點數를 받을 수록 그 指導力은 弱하다고 할 수 있게 된다. 換言하면 指導者の 指導力(變數 Z_4)이

(48) J.H. Kob & A.F. Wielden, *Special Interest Group in Rural Society* (Wisconsin: Agr. Exp. Stat. Resear. Bull. 1937), p. 3.

強할 수록 그點數는 낮다. 이제 假說Ⅰ의 内容中 社會構造的 特性과 刷新이 過度에 대한 부분을 보면 「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指導者의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인데 兩變數間의 方向係數(P_{41})가 正(+)의 값인 .16을 가지므로 假說Ⅰ의 内容은 否定되고 따라서 結果의으로 正反對의 假說 即, 「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指導者의 指導力은 減少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假說을 定立할 수 있게 된다.

이리로 새로운 假說이 導出되는 原因으로서는 社會構造가 分化될 수록 個人主義가 弻배하고 集團意識이 易化되며 共同運命體意識에서의 離脫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農村社會構造의 特性에서 刷新의 程度에로의 因果關係方向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因果關係의 方向係數(P_{51})는 앞에서 言及方 바와 같이 .04로서 因果關係模型에서 認定한 因果關係의 向+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진 方向係數이다. 따라서 假說Ⅰ의 「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部分은 거의 無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韓國農村社會의 構造的 特性이 刷新의 程度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생각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表 4〉에서 보듯 社會構造의 特性과 刷新의 程度間의 相關關係는 -.42로 比較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社會構造의 分化度와 刷新의 程度는 相互 상당히 密接한 逆相關關係를 露呈하고 있다. 여기서 問題로 掛起되는 것은 因果關係(causation)와 相關關係(correlation)의 差異이다. 社會構造의 分化가 刷新의 程度에로 直接的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兩變數間의 相關關係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因果·相關關係의 区分을 要한다.

結論으로 以上的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即, 社會構造의 特性은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에 상당히 큰 負(-)의 영향을 미치나 指導者의 指導力에 대해서는 微微한 負(-)의 영향력 밖에 미치지 못하여 刷新의 程度에 대한 社會構造의 特性的 영향력을 거의 無視할 수 있은 정도이다.

3. 假說Ⅱ의 檢證

(49) Hise, *op. cit.*, p. 61.

本論文 假說Ⅱ의 内容은 「政府의 政策支援이 크고 積極的일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 또한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로서 이제 이에 대한 檢證을 각 因果關係方向에 따라 論議해보도록 하자.

各 因果關係의 方向係數(Path Coefficients)를 〈圖 10〉에서 보면, 政策支援에서 住民의 態度에로 關한 方向係數(P_{32})는 .11이고 指導者의 指導力에로의 方向係數(P_{42})는 -.43이며, 그리고 刷新의 程度에로의 方向係數(P_{52})는 .46이다.

이를 假說의 内容順序에 따라 說明하기로 한다.

첫째로, 政策支援의 住民의 態度에 대한 影響을 보면 各變數間의 方向關係中 끝에서 두번째로서 政策支援이 住民의 態度變化에 正(+)의 影響을 미치기는 하나 그 效果가 极히 微微한 편이다. 이는 現在 우리나라 政府가 農村開發 또는 農村地域刷新을 위하여 住民의 態度를 直接적으로 變化시킴으로써 刷新目的을 達成하려 하기 보다는 指導者를 通해서 目標達成을 이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韓國農村刷新의 成功與否가 그 地域住民의 態度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現在 우리나라의 農村刷新을 위한 諸政策은 새로운 次元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分析結果가 示唆해 주고 있다.

둘째로, 政府政策支援의 指導者의 指導力에 대한 影響을 살펴보면 各變數間의 方向係數中 두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 影響力은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假說Ⅰ의 社會構造의 特徵과 指導者의 指導力間의 因果關係假說檢證部分에서 言及한 것처럼 指導力에 대한 配點이 逆으로 되어 있으므로 負(-)의 方向係數를 가지나 假說Ⅱ의 内容 「政府의 政策支援이 크고 積極的일 수록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에 合致한다.

이렇게 政府의 政策支援의 指導者의 指導力에 대한 影響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政府가 農村里·洞의 指導者教育에 크게 注力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指導者를 刷新의 主役으로 보고, 이들에게 長期的·公式的 教育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政府는 里·洞指導者를 刷新의 唱導者(advocate), 初期採擇者(adopter),

發案者(initiator)로 만들어, ⁽⁵⁰⁾ 궁극적으로는 農村里·洞自體의 指導力에 의하여 刷新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指導者에 대한 政府의 強力한 政策支援의 理由의 하나로서 政治的인 理由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政府의 政策支援이 강하게 나타날 수록 그 效果가 指導力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分析結果 뚜렷히 證明되고 있다.

셋째로, 政府의 政策支援에서 刷新의 程度에 의한 因果關係方向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因果關係의 方向係數는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46으로서 各 變數間의 方向係數中 가장 높은 값을 가짐으로써 刷新의 程度에 대한 之타 變數의 영향력 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發揮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農村刷新은 住民들의 自發的인 努力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外部的인 힘인 政府의 政策支援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政策支援의 效果가 이렇듯 크게 나타나고 있는 理由로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運動이라는 全國을 對象으로 하는 政府의 대내·外인 政策推進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이는 아마도 開發途上國 農村發展에 있어서는普遍的인 現象일 것이다. 本大學院 金光雄教授도 農村의 生產性의 向上을 위하여 政府의 多角의in 政策決定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圖式化해서 表示하고 있다. ⁽⁵¹⁾

結論的으로 상의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政府의 政策支援의 住民의 態度에 대한 影響力은 正(+)의 值을 가지나 그 效果가 极히 微微한데 反하여 指導者的 指導力에 대하여는 正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고 또한 刷新의 程度에 대해서는 가장 큰 正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假說 III·IV의 檢證

本論文 假說 III의 内容은 「指導者の 指導力이 增大되면 增大될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이며, 假說 IV

는 「住民의 態度가 變動指向의 일수록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인 바 假說의 順序대로 論議를 展開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假說 III에 대하여 살펴보면, 各 因果關係의 方向係數는 指導者の 指導力에서 住民의 態度로 向한 值이 -.22이고, 刷新의 程度에 의한 方向係數는 -.26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指導者の 指導力이 住民의 態度에 관한 影響은 그 方向係數(P_{34})가 全體各 變數間의 方向係數中 여섯번째로 큰 值이므로 약간 낮은 것이라 하겠으나, 住民의 態度로 向하는 세개의 方向即 社會構造의 特性, 政策支援, 指導者の 指導力으로부터의 方向係數에서 두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누누히 言及한 바와 같이 指導力에 대한 配點이 逆으로 된 것이라므로, 負(-)의 方向係數를 가지나, 假說 III의 内容 「指導者の 指導力이 增大되면 增大될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 일 것이다」에 致된다.

그러나 이 方向係數値은豫想보다 크지 않은 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農村里·洞內 住民指導者가 住民의 充分한 支持와 同調를 獲得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指導力에서 刷新의 程度에 의한 方向係數는 各 變數間의 方向係數中 다섯번째로 큰 值을 가지는 바, 비록 負(-)의 值을 가질지언정 刷新에 대한 正(+)의 影響力を發揮하고 있다. 刷新으로 向하는 4개의 方向中에서 세번째 크기를 가짐으로써, 社會構造의 特性으로부터의 方向을 無視하면 刷新에 대하여 가장 낮은 영향력을 示顯하고 있다.

이 結果에 의하면 現在 우리나라의 農村指導者は 政府의 期待나 住民의 要求에 부응하여 刷新에 대한 效果의in 指導力を 充分히發揮하지 못하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다음 假說 IV에 대해서 살펴보면 住民의 態度로부터 刷新의 程度에 의한 方向係數值(P_{53})가 .29이다. 이는 刷新으로 向하는 各 變數의 方向係數値中 두번째로 큰 值이며 全體各 變數間의 方向係

(50) 趙錫俊, *組織論*(서울: 法文社, 1973), p. 300.

(51) 金光雄, “새마을事業의 生產性과 그 影響要因에 관한 實證的研究,” *行政論叢* 11卷 2號,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3), p. 51.

數中 더 번째 큰 값으로서 그 因果關係는 假說과一致한 す。 그리고 이結果에 의하면 現在 우리나라 農村의 刷新이 어느 정도 達成된 데는 刷新選擇者요 刷新擴散의 當事者인 住民의 役割이 상당히 커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外在的 要因의 刷新에 대한 영향보다는 크지 않으므로 農村刷新을 위해서 住民의 態度變化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結論적으로 이상의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假說 1에서 指導者의 指導力은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에 正(+)의 影響을 미치고, 刷新의 程度에 대하여도 正(+)의 影響力を發揮한다.

假說 7에서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는 상당히 큰 正(+)의 影響을 刷新에 미치고 있다.

5. 各 變數의 刷新에 대한 間接的 影響分析

(Total Indirect Effects)

因果關係分析은 從屬變數에 대한 獨立變數들의 直接的의 영향뿐만 아니라 間接的의 影響도 測定可能하게 한다. 이 間接的 影響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II \text{ (Total Indirect Effects) of } Z_i \text{ on } Z_j$$

$$= t_{ij} - P_{ji}$$

이 式에 따라서 刷新에 대한 各 變數들의 總間接의 影響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1) 社會構造의 特性의 刷新에 對한 間接的 影響은 아래의 각方向에서 求하여지는 影響들을 合計한 것이다.

$$\textcircled{1} \quad Z_1 \rightarrow Z_3 \rightarrow Z_5$$

$$\textcircled{2} \quad Z_1 \rightarrow Z_4 \rightarrow Z_5$$

$$\textcircled{3} \quad Z_1 \rightarrow Z_4 \rightarrow Z_3 \rightarrow Z_5$$

$$\textcircled{4} \quad Z_1 \sim Z_2 \rightarrow Z_5$$

$$\textcircled{5} \quad Z_1 \sim Z_2 \rightarrow Z_3 \rightarrow Z_5$$

$$\textcircled{6} \quad Z_1 \sim Z_2 \rightarrow Z_4 \rightarrow Z_5$$

$$\textcircled{7} \quad Z_1 \sim Z_2 \leftarrow Z_4 \rightarrow Z_3 \rightarrow Z_5$$

$$TII \text{ of } Z_1 \text{ on } Z_5 = r_{51} - P_{51}$$

$$= -.38$$

이 刷新에 대한 社會構造의 特性의 間接的 影響值은 社會構造의 特性으로부터 影響을 받고 있는 어느 方向係數보다 높은 값이다. 특히 刷新에 미치는 社會構造의 特性의 直接的의 影響은 .04로

서 完全히 無視될 수 있는 影響力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하면 엄청나게 큰 影響力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社會構造의 特性이 直接的으로는 刷新에 대하여 큰 影響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特性이 他變數에게 至大한 影響力を 미치게 함으로써 결국 刷新의 程度에 대하여 커다란 間接的의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그 社會構造의 特性이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이 變數의 刷新에 미치는 間接的 效果는 負(-)의 關係에 있다.

결론적으로 비록 負(-)의 關係이기는 하지만 農村社會構造의 特性은 農村刷新問題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2) 政策支援의 刷新에 대한 間接的 影響은 위와 같은 方法으로 구한 結果 .22로 나타났다.

政策支援의 刷新에 대한 間接的 影響力 역시 이의 直接的의 影響力과 마찬가지로 正(+)의 關係에 있는 하지만, 그 直接的의 影響力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다. 그러나 政策支援의 間接的 影響力은 無視될 수 없을 程度로 약간 큰 값이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農村地域이 處하고 있는 여러 問題를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政府의 政策支援이 刷新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커다란 影響力を發揮하고 있는 變數임을 發見하게 된다.

아무튼 政策支援의 農村刷新에 대한 影響力を 그의 直接的·間接的 效果를 同時に 고려해 본다면, 農村刷新問題에 있어서 가장重要하고 核心의 인 要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問題는 다른 問題일 것이다.

3) 指導力의 刷新에 대한 間接的 影響은 -.06이다.

이 欲은 거의 無視해도 좋은 間接的 影響力이다. 따라서 現在 우리나라 農村의 指導者의 指導力은 刷新에 直接的으로만 影響력을 미치는 關係에 있을 뿐, 다른 變數에 影響을 주도록 間接적으로 刷新에 영향을 주는 기능은 없다고 하겠다.

第五章 結論

우리나라 農村刷新을 위한 因果關係의 考察을

위한 變數로 ① 社會構造의 特性, ② 住民의 變動에 대한 態度, ③ 政府의 政策支援, ④ 指導者の 指導力 및 ⑤ 刷新을 設定하여 그들 變數間의 因果關係를 分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보다 뚜렷하고 새로운 假說을 提示하고자 한다.

第1節 新로운 因果關係模型

1. 修正된 假說

前章에서 檢證된 結果에 의하여 各 假說들을 再定立하면 다음과 같다.

假說 I. 農村社會構造가 分化·複雜·多樣해질 수록 住民의 態度는 現象維持의이고, 住民을 刷新으로 誘因할 있는 指導者の 指導力은 減少될 것이다.

假說 II. 政府政策支援이 크고 積極的일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指導者の 指導力은 增大될 것이다. 또한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假說 III. 指導者の 指導力이 增大될 수록 住民의 態度는 變動指向의이고,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假說 IV. 住民의 態度가 變動指向의일 수록 刷新의 程度는 높아질 것이다.

2. 新로운 因果關係模型

假說의 檢證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社會構造의 特性的 刷新에 대한 直接的인 影響力은 無視될 수 있으므로 兩變數間의 因果關係方向을 削除한 후 新로운 模型과 方向係數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1) |로운 因果關係모델

$$Z_1 = P_{1u}U_1 \quad (P_{1u}=1)$$

$$Z_2 = P_{2u}U_2 \quad (P_{2u}=1)$$

$$Z_3 = P_{31}Z_1 + P_{32}Z_2 + P_{34}Z_4 + P_{3u}U_3$$

$$Z_4 = P_{41}Z_1 + P_{42}Z_2 + P_{4u}U_4$$

$$Z_5 = P_{52}Z_2 + P_{53}Z_3 + P_{54}Z_4 + P_{5u}U_3$$

이에 따라 方向係數를 求하는 式을 세워보면 아래와 같다.

$$r_{31} = P_{31} + P_{32}r_{12} + P_{34}r_{14} \quad (1)$$

$$r_{32} = P_{32} + P_{31}r_{12} + P_{34}r_{24} \quad (2)$$

$$r_{41} = P_{41} + P_{42}r_{12} \quad (3)$$

$$r_{42} = P_{42} + P_{41}r_{12} \quad (4)$$

$$r_{52} = P_{52} + P_{53}r_{23} + P_{54}r_{24} \quad (5)$$

$$r_{53} = P_{53} \quad (6)$$

$$r_{54} = P_{54} + P_{53}r_{34} \quad (7)$$

$$r_{34} = P_{34} \qua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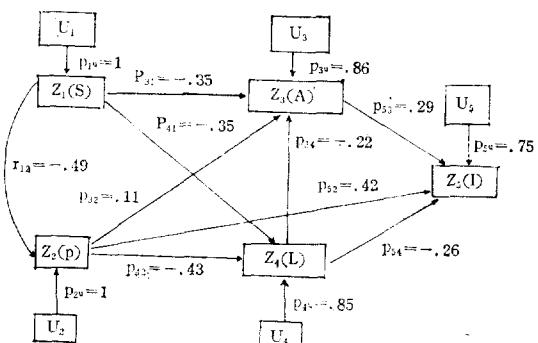
$$r_{33} = 1 = P_{31}r_{13} + P_{32}r_{23} + P_{34}r_{34} + P_{3u}^2 \quad (9)$$

$$r_{44} = 1 = P_{41}r_{14} + P_{42}r_{24} + P_{4u}^2 \quad (10)$$

$$r_{55} = 1 = P_{52}r_{52} + P_{53}r_{53} + P_{54}r_{45} + P_{5u}^2 \quad (11)$$

이 式에서 方向係數(P_{ij})를 구하여 因果關係 Model에 따라 因果關係 Diagram을 그리면 <圖 11>와 같다.

<圖 11> 新로운 因果關係 Diagram



위의 各 變數間의 方向係數值는 社會構造의 特性的 刷新에 대한 直接的인 因果關係方向을 削除한 후 다시 計算한 값이다. 이를 筆者가 定立한 假說의 模型에서 求한 各 變數間의 方向係數值와 比較하면 한가지 種類의 方向係數와 刷新에 대한 外部要因에 의한 説明度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뿐이다. 즉 政府政策支援에서 刷新에 대한 影響力(P_{52}) .46에서 .42로 작아지고 또 刷新에 外部要因의 影響力이 .73에서 .75로 增大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社會構造의 特性和 刷新의 直接的인 因果關係方向은 擬似的(spurious)因果關係方向임이 分明해진다. 또한 方向係數值가 어느 정도되어야 큰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方向係數($P_{32}=.11$)를 削除한 후 計算해 본 결과 基本的인 關係가 成立할 수 없을 程度로 다르게 나타난 關係로 이 方向係數보다 큰 값은 意義가 있는 것임을 發見했다.